

‘올리느냐 깎느냐’ 여야 예산안 전면전 돌입

민주당 7조3천억원 삭감 공언

SOC 등 곳곳 힘 겨루기
예산안 처리 합의문 연기
지역 현안 증·감도 주목



이한구 예결위위원장 등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일요일인 7일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고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여야 간 ‘삭감·증액’ 경쟁이 본격화했다.

여야는 그동안 수정예산안 제출, 예산 부수법안인 감세법안 처리 등 큰 틀의 논의를 해왔지만 이제 세부 항목별로 ‘깎질’할 예산 항목을 놓고 치열한 사투에 들어간 셈이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첫 해 국정철학이 담겨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처방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각 지역별로 현안 사업 예산 지키기 경쟁이 가열되면서 자치단체와 지역 의원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7조3천억원의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 SOC(사회간접

자본) 예산 3조원,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증액사업 8천억원, 신규사업 중 사업계획 미비사업 4천억원, 법률 제·개정 전제 및 법적 근거 부재사업 1조6천억원 등이다.

또 사용내역 미공개 예산인 특수활동비 4천억원을 포함한 불투명 예산과 민주인권 탄압용, 신공안정국 조성 예산, 정권 홍보 및 역사왜곡 예산이라고 비판받는 항목도 삭감 대상에 포함했다.

대신 민주당은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과 복지예산 확충,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에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서민일자리 창출 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등록금 지원 1조원 등을 증액 대상으로 포함했다.

자유선진당은 대운하 관련 2조2천억원, 무분별한 남비성 SOC사업 3조4천억원, 예

산집행률이 낮은 사업 3조원 등 모두 9조4천억원 가량을 삭감키로 했다.

대신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증액, 산업간·업종간 불균형 보완, 지방 재정부담 경감 등을 통해 2조9천억원을 증액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지만 야당이 예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할 경우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의 증·감에도 관심사다. 이 지역 의원으로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민주당 조영택,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어 비교적 삭감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 기대가 있지만 여야간 경쟁에 몰릴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일부 항목의 경우 삭감 규모가 더욱 커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막바지 예산 지키기 작업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문 작성을 위해 7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8일로 하루 연기됐다.

‘거꾸로 간’ 감세 심사

기획재정부 감세액 정부안 보다 되레 2조원 늘어

감세 규모를 줄이고자 했던 국회의 정부 감세법안 심사 결과, 감세 규모가 오히려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가 처리한 감세법안에 따른 세수 추이를 집계한 결과, 내년도 세수는 정부안보다 2조2천억원 가량 더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당초 14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정부 원안 처리를 공언했고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이유로 들어 민주당 6조원, 자유선진당 3조원 감세 축소를 주장했다는 점에 비춰 국회의 심사작업이 거꾸로 간 셈이다.

이는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의 결과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하 요구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개별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하고 새로운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타협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으로부터 이런 감세안을 받아내기 위해 애초 대대적 삭감을 공언

했던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감세안을 수용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추가 감세마저 용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상속·증여세 감세를 막은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다.

더 큰 문제는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초과 2년간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값면 신설, 고향주택 취득시 1가구2주택 합산 제외 등 새로운 감세항목까지 신설돼 감세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다.

여야는 이런 결과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7일 “정부안의 감세 항목은 민주당의 감세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로 늘어난 것”이라며 “부자 감세를 막았다던 민주당의 논리가 결국 포장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부자감세가 줄어들고 서민감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감세 폭이 더 커졌다”며 “감세 규모를 줄이려면 고소득층인 소득세와 법인세 및 과표구간을 많이 깎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한미FTA 농업예산 비준 전 집행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비준동의안 처리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2007년에는 2008년도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예산으로 3천801억원을 책정했으나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 올해는 정부가 내년도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으로 4천729억원을 제출했다.

향목별로는 지난번 예산심사에서 유보돼

올해 사용하지 못한 한미 FTA 보완대책 가운데 축사시설현대화 예산은 상임위 심의대로 995억3천900만원을 올해는 부대조건을 달지 않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책정된 폐업 지원(500억원), 피해보전직불(400억원), 한식세계화(100억원) 등의 예산을 상임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은 예결특위 종합심사 등에서 감액 의견이 제시됐던 예산안 검토했기 때문에 증액 부분을 심사할 경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없이 집행되는 예산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기국회 ‘허송’...연말 임시국회 난항 예고

18대 첫 정기국회가 9일 막을 내리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년만의 여야교체 이후 지난 9월1일 문을 연 정기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위헌’을 반복했고, 국정감사와 쌀 직불금 국정조사 내내 국민의 관심과는 달리 신구(新舊) 정권의 허물 들추기로 일관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기국회 직후 여야의 소집요구에 따라 10일부터 한달간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합량 미달’ 국회의 모습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능력자에서 보여준 여야의 모습은 부실국회의 상징이다.

한나라당은 실물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상속·증여

세 등 예산 부수법안인 감세법안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 귀를 닫았고,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안도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헌법이 규정한 ‘12월2일’이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은 또다시 무용화됐다. 여야는 예산 12일 처리에 뒤늦게 합의했지만 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예산안 ‘부실 심사’

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쟁의 와중에 국회 본회의 업무인 법안 처리 건수는 불과 58개에 그쳤다. 7일 현재 계류 법안이 2천325개임을 감안하면 과업 수준의 국회였다라는 지적을 면기 어렵다.

국정감사 역시 쌀 직불금 파문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이 줄을 이었지만 전·현정부 책임론만 부각돼 생산적인 국감은 실종됐다.

결국 여야는 10일부터 임시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간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곽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곽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아말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완성)

교원임용 동영상상의 전문 - www.eduvie.net

에듀뷰넷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비번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곽내영고시학원 수강문의 광주 (대)529-0090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학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발!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별 교세관법검찰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판정전호지방술

30주부특별반 10월기능직강
40주일반반 11월기능직강

'09년 시험안내
12월15일 (주)예전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 (교재17만원포함)
3개월: 50만원 (교재10만원포함)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신함.

www.mdgosl.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매월 1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기초 12월·기본서 1월 2일부터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국비지원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선착순 60명

12월15일 공개설명회
오전 10시~12시
목포해당지구 대성학원 건물 3층
(061)277-8111

여러분의 생활이 도움이 되는...

생활안내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새롭 행정고시학원

합격을 1위 전국수석합격

서울점 ☎361-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 학장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

여러분의 생활이 도움이 되는...

생활안내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